오늘 '한덕수 표결'…민주, 부결론 우세 속 신중론도 대두

이재명·우상호 전략적 사고 강조…오늘 의총서 결론
선거 부담 '반대' 당론 아닌 권고·자율투표 가능성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 등을 들어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까지 당론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견 반대표를 던져 한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강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강경 여론에 힘을 실은 형국이다.

한 장관 임명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협치를 요구해 놓고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를 차버렸다는 것이다.

초지일관 강경한 태도였던 다수의 초선과 달리 여권과의 협치를 위해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던 일부 다선 의원도 한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표리부동한 윤 대통령의 행태에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며,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정치적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인준안 부결을 위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패배에 이은 2연패를 막아야 하는 이 위원장으로서는 한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선거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부결시키는 데 대한 부담이 있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후에 표결해도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아직 임명하지 않은 정 후보자를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빠 찬스' 의혹 등을 들어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장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준안을 정략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 후보자를 인준해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준 필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하면서 20일 의총에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권고하거나 자율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설사 표결을 의원들의 의사에 맡기는 자율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장관 임명으로 당내 의원들의 여론이 크게 악화한 상황에서 인준안은 결국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표결 앞둔 한덕수 총리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전기·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중단해야"

포기 않으면 지방선거 국민 저항
이재명 "싸워달라", 의원들 SNS 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가 전기·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비례)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발표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영화를 '공공기관 선진화'로 포장하며 밀어붙였던 이명박(MB) 정부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때부터 수상했다. 하지만 국가를 기업과 일부 특권층의 수익모델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전력·철도·의료·공항 등 주요 공공기업을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것은 철 지난 신자유주의"라면서 "국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민영화의 역사를 기억한다. 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시도에 민주당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도 온라인 공간에 '민영화 반대' 메시지를 내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이 전날 인터넷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글을 올려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고 했다.

이날은 박홍근 원내대표,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10여명 이상이 '전기, 수도, 철도, 공항 민영화 반대'라는 메시지를 릴레이로 올리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이 글과 함께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어 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양향자, 복당 신청 철회…이재명·송영길 비판

'처럼회' 세력 외연확대 걸림돌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밤 페이스북에 '복당 신청을 철회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6년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172명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추진을 비판했다.

또 이 상임고문을 겨냥해 "패배한 대선 후보가 한 달 만에 정계에 복귀하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출마하고 보궐선거 후보가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는 기이한 모습에 (민주당이) 박수를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해서도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이자 '586용퇴'를 외쳤던 586세대 맏형이 사퇴 20일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개딸'의 등장은 고맙고 반가울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한다. 지금 '개딸'에 환호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며 "처럼회와 같은 극단적·교조적 인식을 주는 세력은 외연확대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치, 견제와 균형 작동돼야"…민주 일당독점 폐해 지적

주기환 '광주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메시지 호응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SNS를 통해 "지금, 광주의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글을 남겨 관심을 끌었다.

주 후보는 이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방자치 시작과 함께 27년 동안 광주·전남에서의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지고 있는 보수 정권의 변화 앞에 광주의 선택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민선 27년, 광주시장은 한번도 민주당 계열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건강한 정치의 제1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광주는 광역시 중 가장 낙후되고 고립된 도시가 됐다"면서 "하지만, 그 주체는 민주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세계 어느 역사를 살펴봐도 오랜 시간 견제없이 이뤄진 정치의 결과가 좋았던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광주시를 낙후되고 고립된 도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에서 오랜 시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선택을 해왔다. 평생을 광주에서 살다보니 어느 사이 민주당이 곧 정의이고 광주의 선택이 늘 옳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절대 선(善)이 아니고 정답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정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면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변화 앞에 주저하며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또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단순히 제 SNS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절자'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는 말을 최근 가장 많이 듣고 있다"면서 "왜 오늘의 광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을 역설하는 순간 사회생활, 심지어는 생업에 지장이 생길 각오까지 해야하는 도시가 되고 말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모르게 광주에 뿌리 박혀버린 그릇된 풍토가 잘못된 것이다"고 진단했다. 주 후보는 "오는 6월1일 전 국민이 다시 광주를 주목한다"면서 "다시 위대한 광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80억, 호텔/ 무인텔 매매 교환

-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 내**
- 대지 2980평, 건물 1270평, 계획관리
- 건물 3동, 객실 52개, 관광호텔 허가 有
- 요양(병)원, 콘도, 리조트, 연수원 등 **업종 변경가**
- 법인체 양도양수가, **수도권 토지와 교환 가**

주인 직거래. 010-3605-5000

22억, 신안동 대지, 매매

- **광주 북구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지하1층 지상10층, 72호실)
- **근린상가 등 타업종 변경가**
- 현, 주차장 영업 中

(주)오천경매. 010-3605-5000